

도의원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2)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

4인 출사표...“정주 여건 개선” 한목소리



민주당 박호형 의원 3선 도전 김희현 전 정부부지사 출사표 국민의힘 원화자 지역구 출마 강순아 정의당 도당위원장도

제주시 일도2동은 전·현직 도의원 등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구 중 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직인 박호형 의원(59)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3선 도의원 출신인 김희현 전 정부부지사(66)도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해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중량급 정치인 간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66)이 첫 지역구 도전에 나서고,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41)도 출사표를 내면서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예비주자들 모두 ‘정주 여건 개선’을 지역 현안으로 꼽으면서도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박호형 의원은 “여러 현안 중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며 “주차장 확보와 신산공원, 문예회관, 자연사박물관, 콘텐츠진흥원을 잇는 문화·관광 벨트화, 어르신

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현 전 부지사는 “교통 문제와 주차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며 “스마트타워 주차장을 만들고 운동장 등을 임대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어르신 복지시설과 청소년 쉼터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앞으로 세부 공약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원화자 의원은 “가장 큰 과제는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의 경쟁력 확보”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고도지구를 완화하고, 신산공원을 생태역사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또 국수문화거리와 고마로 마문화 축제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상권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강순아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지역 최대 현안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라며 “생태 놀이터와 돌봄, 복지서비스 등 인프라를 잘 만들어 지역의 문화를 바꾸겠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투자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동보도, 정리=삼다일보 김동진 기자>

제주, 한국-싱가포르 가교 역할 ‘톡톡’

이재명 대통령 국민 방문 제주 배경 ‘폭삭 속았수다’ 만찬장서 정상 간 화젯거리 만찬 메뉴엔 제주한우 선배 김혜경 여사 제주해녀 주재 ‘해녀의 부엌’ 방문해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 국민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국민 만찬의 화제로 오르는 등 제주가 양국 정상외교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워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대통령을 면담하고 국민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정치·외교·경제·안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카펠라 호텔에서 국민만찬을 함께 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만찬을 주최한 타르만 싱가포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를



김혜경 여사가 2일 ‘해녀의 부엌 싱가포르점’에서 한국관광 현장 간담회 후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 친근함을 전했다. 특히 타르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예로 들면서 “삼대에 걸친 평범한 삶의 존엄성이 싱가포르와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싱가포르를 만찬 메뉴로 제주 한우 스테이크 등 한국산 재료를 활용한 퓨전 한식을 제공했다.

김혜경 여사의 일정보에서는 제주의 해녀가 주인공이 됐다.

김 여사는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오후 ‘해녀의 부엌 싱가포르점’을

방문하고 한국관광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일정은 최근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지역관광 활성화 기조의 연장선에서 그 가능성을 해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녀의 부엌’은 제주의 해녀문화와 식문화를 공연과 음식으로 풀어낸 복합 다인링 공간으로 현재 제주도 내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 진출했다.

김 여사는 현무암과 감물 원단, 소쿠리, 해녀복 등이 전시된 북도

에 들어서며 “싱가포르에서 제주의 돌을 보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김하원 해녀키친그룹 대표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지 두 달 반 정도 되었는데 한국의 남쪽 바다에 자리한 섬 제주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애정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주 전통과 삶의 이야기가 싱가포르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서 방한 관광 및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부미원기자

제주도교육감 선거 ‘3자 구도’ 재편

<김광수 vs 고의숙 vs 송문석>

김창식·오승식 ‘불출마’... 단일화 여부 관심 ↑

오는 6월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가 김광수 교육감과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송문석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교육감 출마가 거론되던 교육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선 대진표도 예상보다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창식 교육의원이 지난날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승식 교육의원도 3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현직 교육감의 재선 도전에 두 후보가 맞서는 3자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진표가 정리되면서 후보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이날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4일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의원은 정책 기자회견을 통해 정략계약 포탈 구축, 부당 계약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 IB고등학교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문석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지난

달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그는 제주형 교육 모델 완성, 기초학력 책임제 강화, 교원 및 학교 안전 강화 등 3대 핵심 비전을 내걸고 지지층 확산에 나서고 있다.

향후 선거 판도를 가를 최대 변수는 후보 간 단일화 논의 여부다.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도전 후보들의 표심이 분산될 경우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향후 후보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가 다시 한 번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재원기자

>> 1면에서 계속=제12대 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447회 임시회와 6월 9일 열리는 제448회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4~5월에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임시회를 열지 않는다.

한편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취수 기간 연장 동의안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두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400t으로 증량하는 내용과 오는 11월 24일 만료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선거 직전 지하수 증산 계획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선거가 끝나는 6월 임시회 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Junwoosongchinhwanghakdaen (Junwoosongchinhwanghakdaen) regarding the 2026 scholarship selection. It lists application details, eligibility criteria,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rand Protection (Grand Protection)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satisfied customer and details about their 24-hour service and product range.

Advertisement for Dongseon Interiors (Dongseon Interiors) showcasing modern living room and kitchen design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services.

Advertisement for Dongseon Furniture (Dongseon Furniture) highlighting their wide range of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emphasizing quality and value.